

# 새정치도 여성 후보 30% 공천할까

### 당헌·당규 마련 앞두고

### 민주당 규정 유지 촉박

26일 출범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당헌·당규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원 여성 후보 30% 의무 공천 규정이 담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민주당 당헌에는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자치단체장 후보자 제외)에 있어서 여성 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여성 의무공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광역의원 도전에 나서고

있는 여성 입지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당헌·당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해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선출직 지방의원 여성 30% 의무공천 실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를 표방한데다 기초의원 무공천에 따라 당헌에 광역의원 여성 30% 의무공천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 여성 30% 의무공천이 현실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호남은 가능하지만 새누리당과 맞붙는 전국 단위의 광역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의무공천을 실시한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당장, 광주시위원의 경우, 최소 6명의 여성

후보자를 공천해야 하고 전남도위원의 경우, 농어촌 지역은 예외는 있겠지만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성 후보 공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일률적인 여성 공천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기반으로 보다 신중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당헌에 광역의원 여성 공천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성으로 규정하고 세부규정인 당규에는 '1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이상과 현실 정치에서의 경쟁력을 잘 조합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할당 공천 보다는 여성 후보에 가산점을 더 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 민주 중진들과 회동**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들과 오찬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박병석 의원, 안 중앙운영위원장, 김영환, 김성곤, 이미경, 문화상, 이석현 의원.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들과 오찬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박병석 의원, 안 중앙운영위원장, 김영환, 김성곤, 이미경, 문화상, 이석현 의원.

## 지방선거 출마 현직 국회의원 사퇴 '법의 사각'

### 사직서 접수하고 예비후보 등록... 후보·국회의원 이중적 지위 가능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 도전을 위해 국회의원 사퇴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주승용 의원이다. 이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가장 먼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중앙당의 만류로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못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사퇴 카드를 먼저 꺼내는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기독교의 포기를 통한 진정성을 보여 여론의 향배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

지 않을 경우 경선이 끝난 뒤 다시 의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고 있고, 그 원인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법에서 서로 규정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3호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국회의원 사직

원 접수증만 제출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사퇴서가 수리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의원직 사퇴를 규정하는 국회의원법 135조 1항은 '국회는 의결로 사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회의장이 사퇴를 허가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직 국회의원이 사퇴서 접수증을 첨부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회는 그 사퇴 결정을 미룰 경우 그 후보자는 공직선거 후보로서의 지위와 국회의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 아주 기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현행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로 등록하면 당원 사직된다'고 개정하면 더 이상의 혼선은 없다는 것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6·4 지방선거 현장

### 광역단체장

### 강운태, "광주 FISU 포럼 참가자 불편없게"

재선에 도전하는 강운태 광주시장은 17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스포츠 학술대회인 '광주 FISU 포럼'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숙박, 음식, 교통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지원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광주시의 스포츠 문화 및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FISU 회원국의 스포츠 관계자들과 대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 광주 FISU 포럼"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주승용 "KTIX송정~목포 확정 노선 아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KTIX 광주 송정~목포 간 노선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전남도의 주장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 답변을 보면, 광주 송정~목포 구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적노선을 선정할 후 기획재정부와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또 "대안 논의를 마치 지역·분열, 공사지역의 원인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너무 뻔한 태도다"고 말했다.



### 기초단체장·광역의원

### 서종진 "365일 광산구 민생안전상황실 설치"

서종진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광산구를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겠다는 위상에 걸맞게 '365일 광산구 민생안전상황실'을 설치해 지역민 민생안전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부동의 1위로 자살 사망률이 20년 새 3배 늘었다"면서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처지 비관'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잇따른 가족동반자살은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 범상운,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범상운 한국감정평가협회 광주·전남지회 지역본부장은 17일 '남구를 재평가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시의원(남구 제3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감정평가사로는 처음으로 광주 광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범상운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도시계획, 교육, 효사랑,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남구를 재평가해 이에 대한 세부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 예비후보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진월동 넥스타워 5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방갈이에 나선 예정이다.



### 이용섭 "통합신당, 국민의 마음 사로잡아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7일 "통합신당은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장을 시민이 아닌 민주당이 뽑았다. 안 신당 출범으로 경쟁논리가 도입되면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고 민주당의 공천역량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통합으로 목적체계가 더 견고해져 걱정스럽다"며 "하지만 신당창당으로 민주당진영이 하나가 되어서 2017년에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얼마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체질을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영록 "무작위 선거인단 뽑아 경선 바람직"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7일 "무작위 선거인단 선출 방식에 의한 통합경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신당의 경선방식은 기존 민주당원들의 관리승계가 바람직하지만, 당원이 없는 새정치연합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만큼 이 방식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경선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도내 유권자 중 지역·성별·연령 비율을 고려해서 5000명~1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이철원, '운명을 바꾸는 타임머신' 칼럼집 내

광주 남구청장에 출마한 이철원 변호사가 최근 칼럼집 '운명을 바꾸는 타임머신'을 냈다. 이 책을 통해 이 변호사는 교육·경제·과학·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담았다.

주제별로 짧은 문장과 분량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감동이 담긴 삶의 소소한 이야기도 곁들였다.

한편 이 변호사는 군 제대 후 뒤늦게 독학으로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 방정현, 광주시의원 출마... '투명 세금' 슬로건

지역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방법을 연구해온 '한가람경제연구소' 방정현 소장은 17일 광주 동구 2선거구(지원1.2동, 학운동, 학동, 서남동, 지산동)에서 광주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방 소장은 '세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이 되면 광주시가 예산을 짜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세금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또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면 우리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내지는 않고,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때도 우리 이웃은 행복하게 활짝 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일·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무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公告

###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